



점원: 어서 오세요.  
 지음: 안녕하세요. 요즘은 뭐가 맛있어요?  
 점원: 요즘은 사과하고 오렌지가 맛있어요.  
 지음: 사과는 얼마예요?  
 점원: 두 개에 삼천 원이에요.  
 지음: 오렌지는요?  
 점원: 한 개에 천 원이에요.  
 지음: 그럼 사과 두 개하고 오렌지 세 개 주세요.  
 점원: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음: 안녕히 계세요.  
 점원: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보기

가: 어서 오세요.  
 나: 안녕하세요. 사과하고 오렌지 있어요?  
 가: 네, 여기 있어요. 몇 개 드릴까요?  
 나: 사과 네 개하고 오렌지 다섯 개 주세요, 얼마예요?  
 가: 만 천 원이에요.  
 나: 여기요.  
 가: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가격표

오렌지(1개)	1,000원
사과(1개)	1,500원

1)	치약(1개)	2,000원
	칫솔(1개)	3,000원

2)	빵(1개)	1,500원
	과자(1개)	2,000원

3)	우유(1개)	2,500원
	주스(1개)	3,000원

점원: 안녕하세요? 000 치킨입니다.  
 유진: 지금 주문하고 조금 있다 픽업해도 되나요?  
 점원: 네. 지금 주문하시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유진: 네. 양념 치킨이랑 후라이드 치킨 반반 시킬게요.  
 점원: 간장 마늘 양념이랑 매운 양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해 드릴까요?  
 유진: 간장 마늘 양념으로 해 주세요.  
 점원: 네. 간장 마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고 16000원 입니다.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유진: 최유진이고 전화번호는 617-460-9984예요.  
 점원: 네. 감사합니다. 주문번호는 89번입니다.  
 유진: 네. 감사합니다.

응용하기:  
 배달이 되나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서초동 000 아파트 102동 1003호예요.

매뉴판을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해 보세요. 2명이 1조가 되어 역할 놀이를 하세요.



English	우리말/ 한자	연습
Mercury	수성/水星	
Venus	금성/金星	
Earth	지구/地球	
Mars	화성/火星	
Jupiter	목성/木星	
Saturn	토성/土星	
Uranus	천왕성/天王星	
Neptune	해왕성/海王星	
Pluto	명왕성/冥王星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 태도 등을  
관점이라 한다.

같은 대상을 보아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 다음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듣고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꿔 말하세요. (연습 문제의 답이 선생님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물이 조금 있다. → 물이 조금 밖에 없다.

1.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

2. 점심 값이 오천 원 밖에 없다.

→

3. 숙제 제출 기한이 이틀 남았다.

→

4. 숙제를 거의 다 해 갑니다.

→ 숙제를 아직

5. 떠들지 마세요.

→ 조용히

6. 그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

7. 그 친구는 병이 거의 회복 되었습니다.

→

8. 친한 친구가 한 명뿐이다.



9. 숙제가 20페이지나 됩니다.



10. 그 영화는 소수의 마니아들한테 만 인기가 있었다.



11. 오늘 수업시간이 40분이나 연장됐어요.



12. 수익금 1000원당 내 뒀은 겨우 100원 **에 지나지 않는다.**



13.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의 장애는 불편함 **에 지나지 않습니다.**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의 장애는 불편함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14. 소녀가 소년에게 ‘이 바보’라고 한 것은 그냥 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15. 소녀가 소년에게 던진 것은 그냥 조약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 어휘(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쓰세요)**

수출하다 , 현지 , 조사 , 사업 , 가늠하다 , 실제로 ,  
 담당하다 , 관찰하다 , 가능성 , 꼼꼼히 , 보고서 ,  
 제출하다 , 단련되다 , 심지어 , 한 달여 간 , 필수품 ,  
 거추장스러운 , 수정하다/수정되다 편리함 ,  
 안정성 , 홍보하다 , 체험 , 고객 , 원주민

**00 나라에 신발 수출하기**

어느 신발 회사가 00 나라에서 **현지 조사**를 하였다. 00 나라에 신발을 수출하는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가늠하여** 보기 위해서였다. 현지 조사는 **실제로** 그 나라에 가 보고, 그곳이 신발이 잘 팔릴 만한 곳인지, 또는 어떤 종류의 신발이 잘 팔릴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일이다.

현지 조사를 **담당한** 회사 직원들은 00 나라 사람들을 만나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면서** 신발 수출 **가능성**에 대하여 **꼼꼼히** 조사하였다. 한 달여 간의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들은 현지 조사 결과와 수출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신발 수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00 나라에 신발을 수출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00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땅을 직접 발로 밟고 살아왔기 때문에, 신발 없이 메마른 땅바닥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단련된** 발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맨발로 공을 차며 뛰어놀 정도이다.

우리가 00 나라 사람들에게 신발을 보여 주자, 그들은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신발은 편안함을 주는 **필수품**이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00 나라에 신발을 수출한다면 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

‘00 나라에 신발 수출하기’라는 우리 회사의 올해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 나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장

00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한다. 그들이 맨발로 살아온 까닭은 신발을 신는 편이 더 **안전하고**, 더 잘 달릴 수 있고, 더 **편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00 나라 사람들에게 신발을 보여 주었을 때, 그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신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직접 신어보는 **체험**의 기회를 준다면, 맨발로 다니는 **원주민**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맨발로 생활하는 원주민 모두가 우리 회사의 큰 고객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00 나라에 신발을 수출하여야 한다. 00 나라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신발 시장이 될 수 있다.

(1) 글 **가**와 **나**의 글쓴이가 관찰한 00 나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 글 **가**에서 글쓴이는 신발 수출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3) 글 **나**에서 글쓴이는 신발 수출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글에는 글쓴이의 (     )이 나타나 있다. 글쓴이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 태도 등을 글쓴이의 (     )이라고 한다.

- 다음에 오는 소설 ‘소나기’와 드라마 장면을 비교하며 읽어 보세요.
- \* 지난 주 수업시간에 배운 단어에 밑줄로 표시하고 모르는 단어들을 확인하고 질문하세요.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체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얘."

못 들은 체했다. 독 위로 올라섰다.

"얘.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 편으로 한 삼 마장쯤, 소년은 우대로 한 십 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벌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 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봐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도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돌아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걸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아,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저만큼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소녀의 걸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친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 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 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 봤으면."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우 밭으로 들어가, 무우 두 밭을 뽑아 왔다. 아직 밭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 물어 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쥌 깨문다.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아, 맵고 지려." 하며 집어 던지고 만다.

"참, 맛 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라왔다.

"야아!"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 꽃, 이게 도라지 꽃....."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그런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 꽃."

소녀는 마타리 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년은 꽃 한 움큼을 꺾어 왔다. 싱싱한 꽃 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산마루께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유달리 주위가 조용해 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 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칙덩굴이 엉키어 꽃을 달고 있었다.

"꼭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 생각이 난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많이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칠팔굴을 그려쥐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년은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뿜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핵 일어나 저 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년은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을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달음으로 칠팔굴 있는 데로 내려가, 꽃 많이 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끊어 가지고 올라온다. 그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 보자."

누렁송아지였다. 아직 코뚜레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 쥐고 등을 긁어 주는 체 흠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꺽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너희, 예서 뭇들 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다.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 편을 한 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 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뜩선뜩 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의 입술이 파아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 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 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는, 안고 온 꽃뭉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 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 놓은 수수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의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였다.

소란하던 수수잎 소리가 똑 그쳤다. 밖이 멀개졌다.

수수단 속을 벗어 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빗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됐다. 소녀가 순순히 업히었다. 걸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 드라마 '소나기' 앞부분의 주요 장면의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세요.

< > → < > → < > → < >

<가>	소녀가 조약돌을 던지고 갈대숲으로 뛰어간 뒤, 그것을 바라보던 소년이 조약돌을 주워 듭.
<나>	소년과 소녀가 수수단 속에서 소나기를 피하면서 더욱 친해짐.
<다>	소년과 소녀가 들판에서 뛰어놀. 소년이 소녀에게 꽃다발을 만들어 줌.
<라>	소년은 부모님의 대화 내용을 듣고 소녀의 처지를 알게 됨.

- 드라마 '소나기' 뒷부분을 예측해 보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세히 보여 주거나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물건을 찾습니다.	(                      ) (                      )	소녀가 소년과의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함
소년과 소녀가 개울을 건널 때 소년의 옷에 묻었던 흙물이 소녀의 스웨터에 옮겨진 장면이 있지요? 소녀는 죽으면서 그 분홍 스웨터를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보아 소녀가 소년과의 추억을 소중히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주요 사건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파악합니다.	(                      ) (                      )	소녀가 죽음을 맞이함. 소년이 슬퍼함
소나기가 많이 오던 날 소녀가 비를 흠뻑 맞은 사건이 소녀의 죽음과 연결되어요.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찾습니다.	“윤 초시 댁 며느리가 애를 놓고 갔다네.” “난 애가 불쌍합니다.”	소녀가 죽음을 맞이함. 소년이 슬퍼함

한국반	우리말 속담	'소나기' 보기 후 내용 이해
-----	--------	------------------

- TV문학관 '소나기' 중 우리말 속담의 활용 장면을 찾아 보고

알맞은 뜻을 연결하세요.

개천에서 용 나다

나이 들어 시중들 사람을 만나  
고생한다는 뜻

늪어 된 서방 만나다

어렵게 돈을 벌어 멋지게 쓴다는 뜻

개처럼 벌어 정승 같이 쓰다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난다는 뜻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큰 일에 한 번 놀란 일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비슷한 작은 일에도 놀란다는 뜻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대하기  
힘들다는 뜻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 방법은 있기  
마련이라는 뜻

● 드라마 '소나기'를 보고 답하세요.

1. 윤 초시(소녀의 증조 할아버지)는 왜 소녀의 엄마를 홀대 했을까요?
2. 옛날 한국에서 여자가 두 번 결혼하는 것(재혼)은 어떤 의미 었을까요?
3. '열녀문'과 옛날 한국 여자들의 지위에 대해에 대해 알아 봅시다.
4. 소년과 소녀의 하루 동안의 여정을 순서에 맞게 쓰세요.(ppt)

들꽃 따기	소원 빌기	낙엽 밟기	허수아비 놀이
비단조개	무 먹기	원두막에서 비 피함	

→

→

→

→

→

5. 소설 속의 우리나라 들꽃의 이름을 알아 보세요.

(드라마의 장면을 잘 기억해 보고 사진과 일치하는 꽃을 찾아 보세요.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들국화

싸리 꽃

도라지 꽃

마타리 꽃



6. 소녀의 엄마가 손 잡고 울 때 소녀가 잠든 척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7. 소년과 소녀가 함께 돌탑에 빈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8. '소나기' 속 우리말 표현입니다. 내용과 알맞은 말을 찾아 쓰세요.

밥 술 꽤나 뜨다    잔뼈가 굵다    등골이 휘다  
그림자도 얼씬 거리지 마라  
가세가 하루가 다르게 기울다    가슴에 묻다

1)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_\_\_\_\_.

2) 오랜 기간 일정한 곳에서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하다

3) 많은 고생을 하다

4) 제법 잘 산다

5) 잘 살던 집 안이 못 살게 되다

6)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다시 보고 싶지 않다.